

‘남자 영화’ 전성시대

‘남자들이 온다.’
올 극장가는 남자들이 대세다. 남자 영화의 스타트를 끊은 배우는 18세 이상 관람가로 무려 513만명을 동원한 ‘추격자’의 김윤석과 하정우. 영화 개봉 당시만 해도 스타급 배우는 아니었던 두 사람은 살인마와 그를 쫓는 전직 경찰 출신의 포주 역을 맡아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덕에 지금은 추후로 캐스팅 일순위로 떠올랐다.

이어 ‘강철중-공공의 적 1-1’이 바통을 이어받았고 여타 기대작들도 속속 개봉되고 있다. 이영애·김아중 등 스타급 여자 연기자들의 활동이 주춤한 가운데 남성들을 주연으로 내세운 영화들이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송강호

▲골통 형사, 총잡이 캐릭터 다양

‘아이언맨’, ‘인디애나 존스 4-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인크레더블 헬크’, ‘쿵푸팬더’로 이어지는 미국 블록버스터의 계속된 공세를 막아낸 일등공신은 강우석 감독의 ‘강철중-공공의 적 1-1’이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추격자’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관객 400만명을 돌파한 ‘강철중’은 시리즈 첫편부터 강철중 역을 맡았던 설경구와 정재영이 주연을 맡아 불꽃튀는 연기 대결을 벌였다.

전편의 이성재와 정준호의 뒤를 이어 강철중과 맞장을 뜨는 악역에 캐스팅된 정재영은 전라도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며 설경구에 밀리지 않는 연기력을 보여줬다.

강우석 감독은 3년 후쯤 제작할 예정인 ‘공공의 적’ 시리즈 4탄의 주역으로 역시 설경구를 캐스팅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가장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17일 개봉한 김지운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하 ‘놈놈놈’)이다. 이미 시사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모았던 ‘놈놈놈’은 일부에서 1천만 관객 동원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1930년대 만주, 정체불명의 지도를 둘러싸고 쫓고 쫓기는 놈들의 대추격전을 그린 ‘놈놈놈’은 한국 최고의 남자배우 송강호를 비롯해 이병헌·정우성 등 한 화면에서 보기 힘든 스타급 남자배우들이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작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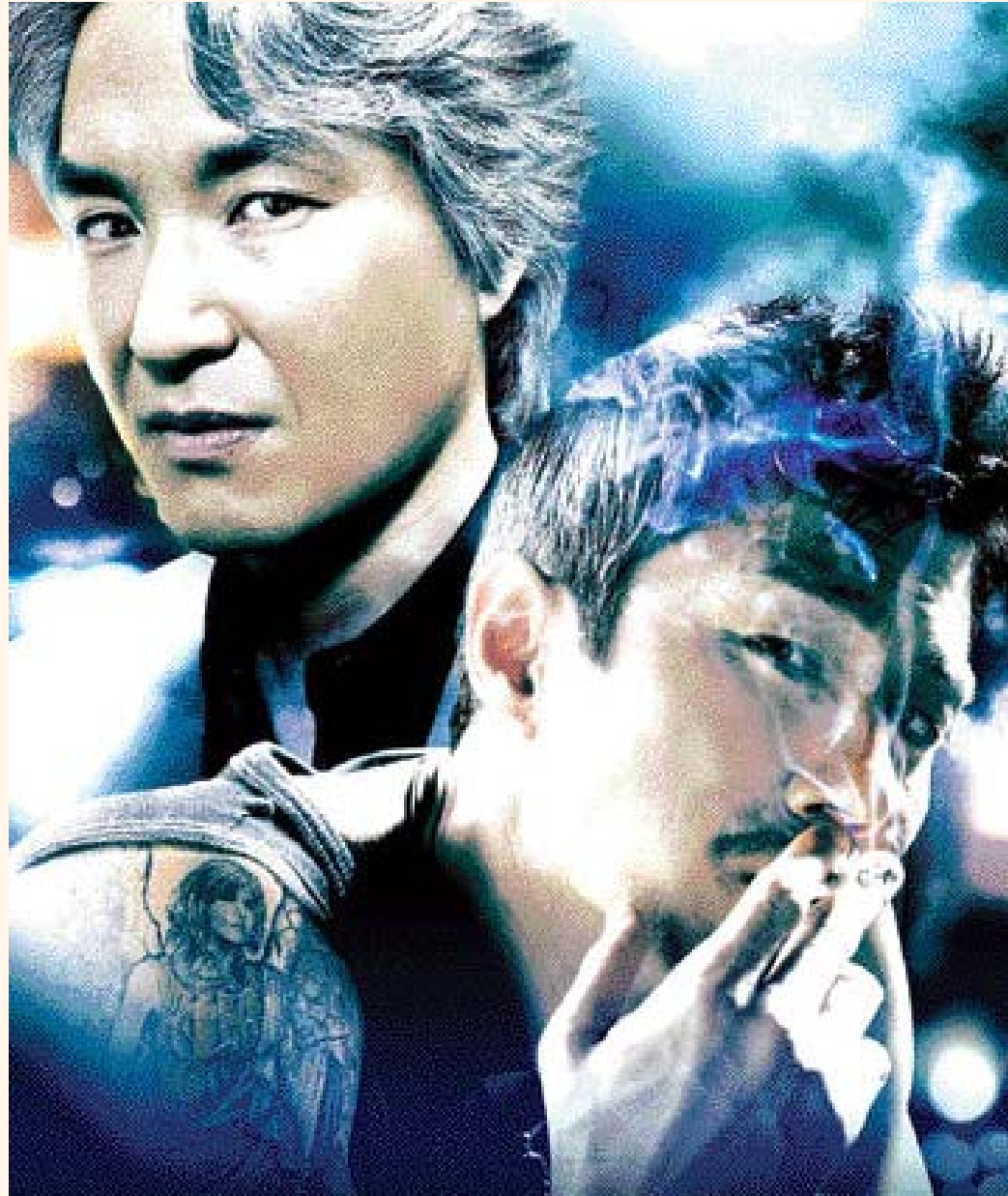
170억원의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데다 ‘달콤한 인생’, ‘장화, 홍련’, ‘반칙왕’ 등으로 관객과 평단의 사랑을 모두 받아온 김지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는 점, 한국영화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서부영화라는 점에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송강호 특유의 코믹 연기와 냉철함으로 분한 이병헌의 모습, 달리는 말 위에서 장총을 돌리며 총을 쏘아대는 멋진 폼의 정우성까지 개봉 첫 주 100만명 관객 동원은 너끈할 것으로 보인다.

▲설경구·송강호·한석규 화려한 캐스팅
3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눈에는 이, 이에는 이’(이하 ‘눈눈이’)는 흥행작 ‘강철중’의 뒤를 잇는 형사물이다.

‘음란서생’ 이후 이렇다할 흥행작을 보여주지 못했던 한석규와 코믹 연기의 귀재 차승원이 호흡을 맞춘 ‘눈눈이’는 ‘대풍’, ‘친구’, ‘사랑’의 광경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완성도에 대한 기대감을 높

정말 썸놈들이 온다



‘눈에는 이, 이에는 이’의 한석규(왼쪽)와 차승원

이고 있다.

경찰을 농락하며 연쇄 사건을 일으키는 천재적인 지능범과 검거율 100%인 노련한 형사반장의 예측불허 대결을 그린 ‘눈눈이’는 박진감 넘치는 자동차 액션신과 스타일리쉬한 영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로 코믹 연기에서 재능을 발휘했던 차승원이 악역을 맡아 연기 변신을 시도하며 형사반장역을 맡은 한석규는 머리를 백발로 염색한 인상적인 외

모로 관객들을 만난다.

추석 개봉 예정인 조승우 주연의 ‘고고 70’ 역시 1970년대를 풍미했던 남성 6인조 밴드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영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밖에 배우가 되고 싶은 광패와 영화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영화는 영화다’ 역시 한류 스타 소지섭과 드라마 ‘홍길동’의 강지환 등 ‘남성 투톱’을 주연으로 내세웠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화명	내용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가 한 장의 지도를 얻기 위해 서로 치열한 추격전을 펼친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이, 엔터	
남스 아일랜드	비밀의 섬을 지키려는 모험심 강한 소녀와 그녀를 돕기위해 집을 나서는 작가 이야기.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이	
스페이스 침스 : 우주선을 찾아서	거대 우주를 발칵 뒤집어놓은 우주 침팬지들의 이야기. 전체 관람가.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도라에몽 : 친구의 마계대모험	꾸지람만 든던 친구가 도라에몽의 마법의 주머니의 힘을 빌려 지구를 구한다. 전체 관람가.
CGV(상무·첨단)	
적벽대전 : 거대한 전쟁의 시작	천지를 뒤튼든 세기의 전쟁이 시작된다. 유비와 손권은 연합군 결성하는데.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이, 엔터	
잘못된 만남	어린시절 단짝 친구인 열혈 경찰과 택시사가 이웃사촌이 되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인다. 15세 이상 관람가.
콜롬버스(상무·하남)	
REC	리얼TV다큐 프로그램의 리포터 인젤라와 카메라맨 파블로는 소말리인들을 따라 사고현장으로 출동한다. 18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 하이	
헨콕	독특한 성격의 까칠한 히어로 헨콕(윌 스미스)이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려 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이, 엔터	
원티드	어지 퀴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액션물로 안젤리나 졸리, 모건 프리먼 등이 주연을 맡았다. 18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이, 엔터	
크로싱	탈북자를 소재로 한 휴먼 드라마로 차인표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무등, 콜롬버스(하남), CGV(상무·첨단), 하이, 엔터	
강철중 : 공공의 적 1-1	강동서 강력반 골통 형사 강철중(설경구)이 5년만에 돌아왔다. 15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이, 엔터	
쿵푸 팬더	키 120cm, 몸무게 160kg에 시속 30cm의 팬더공이 쿵푸의 달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 전체 관람가.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이, 씨너스 전대, 엔터	
인크레더블 헬크	복색 괴물 ‘헬크’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정부 군대의 끈질긴 추적을 받고 쫓기게 된다. 15세 이상 관람가.
엔터	

주목! 이영화

우주 침팬지 요원 임무 완수?

스페이스 침스 : 우주선을 찾아서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침팬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애니메이션이다.

은하계 블랙홀로 임무수행중이던 우주선이 사라져 자 비상이 걸린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선을 되찾기 위

해 최초의 우주 침팬지 요원이었던 햄의 손자 햄 3세를 긴급투입한다.

서커스에서 묘기를 부려 관객들의 환호성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햄 3세는 우여곡절 끝에 우주선 찾기 프로젝트에 합류해 믿음직한 사람과 타이탄, 용감하고 정직한 투니 등 5명의 요원과 함께 우주

로 떠난다.

요원들은 위풍당당 말고르 행성에 임했지만 우주의 독재자를 자처하는 외계인 자폭과 맞서게 되는데..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MC몽과 개그우먼 신봉선 등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